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과 장 이대원 서기관 김승오	042-481-5063 042-481-865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0년 4월 9일(목)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치료·진단·방역 분야 특허정보 공동 분석 추진기로

- 한·중 특허청장 화상회의에서 특허 정보 공동 분석 합의 -

- 박원주 특허청장은 4월 9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선창위 중국 특허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가졌다.
- 이번 화상회의에서 한·중 특허청은 각 청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 진단, 방역에 관한 특허정보 분석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상호 강점 분야를 살려 효과적인 공동 분석 작업을 수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박 청장은 특허 데이터는 현재와 과거의 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중 양국이 특허정보 분석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현재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자고 제안했다.
 - 선 청장은 양 국이 특허 정보 분석 협력을 통해 한·중 뿐 아니라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더욱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 코로나19 관련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협력을 개시하자고 화답했다.

- 한국 특허청은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치료, 진단, 방역 주요 분야별 국내·외 최신 특허기술과 특허동향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고, 중국 역시 특허정보 공유포털을 개통하여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 양국의 분석 정보를 대비하여 볼 때, 한국은 호흡기 감염에 대한 진단 분야에서 자세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한약을 활용한 예방과 치료 분야에서 독자성을 갖고 있어, 양국의 공동 분석 작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상호 방역물품 지원 등 협력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양국 특허청이 나설 차례”라고 하면서, “양국 특허 정보 공동 분석 작업은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특허 정보 분석 방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 붙임 : 한-중 특허청장 화상회의 행사사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서기관 김승오(☎ 042-481-86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중 특허청장,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 개최

○ 내용

박원주 특허청장은 9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선창위 중국 특허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번 화상회의에서 한·중 특허청은 각 청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 진단, 방역에 관한 특허정보 분석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상호 강점 분야를 살려 효과적인 공동 분석 작업을 수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사진설명

화상회의중인 박원주 특허청장과 선창위 중국 특허청장



